



아산 맑은 쌀

발행인: 아산시청 강희복/편집: 공보체육과/우편번호: 336-701/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124(온천동1626)/전화: (041) 540-2221/팩스: (041) 540-2162/http://www.asan.go.kr

20만시민의 최대염원, 소각장 건립이 이뤄지고 있다

배미동 일원이 최고점수,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참여가 성공적 건설의 열쇠

아산시가 마침내 개청 이래 최대의 숙원사업인 생활폐기물소각장(이하 소각장) 건립이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6월 14일 제9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6개 후보지중 배미동 일원에 최고의 점수(79.4점)를 매기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 (지역별 점수현황 아래 표 참고)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입지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를 주민공람에 들어갔고 공람이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입지를 선정, 결정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아산시는 소각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2003년 9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걸고 지역주민들의 소각장입지 신청을 받는 공모를 실시 했었다.

공모결과 6개지역이 응모(추가응모 포함)하여 시는 주민대표, 시의원, 전문가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수차례 거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입지선정을 위해 전문가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이끌어 냈다.

■ 우리시에는 언제, 어떻게 세워지나?

이번에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소각장은 100톤/일 2기, 스토커식의 처리방식으로 건립될 계획이다.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 및 의견 수렴하여 8월, 최종입지가 결정되는 대로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오는 2007년 실질적인 공사착공에 들어가 2009년 7월 완공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소각장 뿐만 아니라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 사우나 등 주민복지시설과 각종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공원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소각장이 건립되면 운영 상황을 정광산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 하고 주민이 선정한 감시원들이 24시간 쓰레기 반입 및 소각장 운영현황을 감시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주민의 안전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운영 할 계획이다.

입지타당성조사 평가(지역별 점수 현황)

순위	신항마을	위치	면적(m)	평점
1	배미동/실곡동	배미동 24-1번지 일원	125,251	79.4
2	신2동	신동 541번지 일원	127,443	75.6
3	일곡4동	일곡동 209번지 일원	110,121	73.0
4	수정1리	신항수정 48-1번지 일원	123,226	74.4
5	와산1리	도고와산 11번지 일원	189,979	61.3
6	와산2리	도고와산 28번지 일원	206,469	60.3

■ 지금 전국에 30여개 자원회수시설이 가동, 관광명소로 거듭 나기도

현재 전국에는 30여개소(100톤/일 기준-환경부 통계)의 소각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열병합시설등을 함께 가동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난방, 수영장 등 체육시설운영 지원등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톡톡히 얻어내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우? 누에구내! 청정마을 뽕잎 먹고 자라는 우리는 송악골 신선(神仙) 질림기술을 전수 받고자 찾아온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누에를 바라보며 신기에 하고 있다. <송악 청정집업단지 - 사진제공 충청투데이>

아산만평



실제로 경기도 구리시는 소각장 연돌이 상층부에 회전식 레스토랩과 전파대를 설치, 한강의 물줄기를 내려다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어 가족이나 연인들의 추억 만들기 명소를 자리를 잡아 서울시민들 인근지역과 외래 관광객이 몰려 들고 있다.

또한 세월을 이용해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서는 연일 시민과 동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구리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 구리타워까지 운행하는 등 모범적인 운영으로 국내는 물론 동남아등 해외에서까지 견학인들이 몰려 구리시를 알리는 효과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 구리시의 구리타워가 토광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구리타워의 야간조명이 또하나의 불거리로 자리 잡으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은 한강이 물줄기와 어우러진 구리타워 빛의 한현을 바라보는 재미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아파트에 밀집한 도심지에 소각장이 자리한 지역은 구리시 뿐만아니라 전국 33개소 중 도심권지역에는 단 6개소에 불과하고 82%에 달하는 27개소의

소각장이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58%나 되는 19개소는 아파트단지와의 거리가 1km미만에 자리잡고 정상가동되고 있다.

이와같이 소각장 건립은 주변지역에 공공시설 유치의 추진과 함께 신규 도로망이 개설되며 도시계획면적으로 도시개발의 촉진, 종합복지시설, 대규모 공원 등이 조성되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므로서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다이옥신? 집값, 땅값?

소각장이 인근지역에 건립된다면 사람들은 우선 반대를 한다. 반대의 이유는 소각장에서만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소각장운영 현황은 현재 환경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면공개하고 있고 배출기준, 검사기준 등 엄격한 법적 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는 최첨단의 과학적이며 친환경적인 소각장 건립 기술을 개발하여 사실되고 있어 이제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0.1ng/TEQ이다.

그러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준치까지 다이옥신을 배출한 소각장은 한 곳도 없고 측정결과 (매년 2회 측정) 33개 소각장중 0.00포인트를 기록한 곳도 있어 (환경부홈페이지 게재·표함고)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주민생활피해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또한 미국 EPA(환경보호국)보고서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800℃에서 분해된다고 한다. 초현대식 최첨단의 소각로는 850℃ 이상 고열처리로 다이옥신 걱정을 없애준다.

시민의 안전을 제일로 삼는 선진 세계각국의 소각장 다이옥

신 배출기준이 우리나라 다르지 않아 우리나라의 배출기준도 세계적 수준이다.

또한 나라별로 생활폐기물처리방식을 보면 스위스 등은 100% 소각을 목표로하며 현재 90%이상을 소각 방법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도 알프스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세계인의 면할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도 전체 쓰레기의 72%이상을 소각처리 하고 있으나 피해사태가 없는 등 선진 각국이 70년 전부터 이미 소각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소각장으로 인한 집값, 땅값하락을 걱정한다. 그러나 우려하는 땅값하락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구리시의 예를 보면 오히려 상승되고 있다.

구리타워가 자리한 토광동 0-1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8년 1월 62,300/㎡에서 2005년 1월 1일 기준 198,000/㎡으로 상당 조정되었다. 택지조성과 전국적 가상승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소각장이 지어지면서 땅값이 하락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또한 수원외의 경우는 소각장으로부터 1.5Km안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나, 오히려 수원종합경기장 주변 아파트 값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주민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 이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참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건립만 남았다.

10여년의 산고 끝에 서풍이 비치는 소각장 건설, 이제 더 이상 틀러날 곳도, 틀러설 수도 없는 아산시 최대의 현안문제! 그 실마리가 술술 풀리고 있다.

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로 쓰레기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만약에 이반에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실패로 끝난다면 다시 한번 지난 97년 고종스러웠던 쓰레기 대란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소각장 성공적 건설의 열쇠가 될 것이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건립의 첫삽을 뜨는 날 시민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공사 감독관이 되어 보다 완벽하고 더 안전한 소각장이 건설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짜내야 할 것이다.

소각장별 다이옥신측정현황

소각장명	호기	채취일	분석기관	분석결과 ng-TEQ/Nm ³
수 원	1	2004. 04. 27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0.02
		2004. 11. 1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0.02
	2	2004. 05. 25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0.00
		2004. 09. 17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0.00
광 명	1	2004. 04. 15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0.01
		2004. 10. 06	환경관리공단	0.01
	2	2004. 05. 24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0.02
		2004. 10. 08	환경관리공단	0.00
노 원	1	2004. 06. 23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0.02
		2004. 10. 15	산업기술시험원	0.01
	2	2004. 05. 27	환경관리공단	0.01
		2004. 11. 26	환경관리공단	0.00
성 남	1	2004. 06. 29	부경대학교 다이옥신연구센터	0.03
		2004. 11. 18	환경관리공단	0.00
	2	2004. 06. 30	부경대학교 다이옥신연구센터	0.04
		2004. 11. 19	환경관리공단	0.02
(인 천)형 라	1	2004. 04. 08	환경관리공단	0.00
		2004. 11. 26	환경관리공단	0.00
	2	2004. 04. 07	환경관리공단	0.00
		2004. 11. 25	환경관리공단	0.00



칼럼

자원회수시설에 거는 기대

사람은 누구나 고향이라는 말에 대한 아련한 느낌을 갖는다. 특히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물장구치고 다다워 쏘던 어린 시절의 고향은 오늘날 콘크리트 아파트 숲에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과거와 함께 그리운 추억으로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잊고 싶어하던 담장 위나 강둑 위에 소복히 쌓인 눈을 또 먹고 빗물에 머리 감고 하천 물을 그냥 마시던 그 시절, 그 시절엔 그래서 이 야기도 많았다. 시냇물을 마시다가 뱀을 먹고 알아 누웠는데 알고 보니 모자의 짓털이 불결에 비친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동네이름도 틀어 다녔으며, 눈이 녹아 개구리가 된다는 약간 황당한 이야기도 그런 줄 알고 신기해 했던 시절이다. 시장을 보러 가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보채며 걸어녔던 시오리 산길엔 팽이버섯이 만발하였고 조그만 손에 꽃을 꿰어 들고 뛰다가 보면 어느새 새 장타에 도달하곤 했던 조금은 불편한 시절이기도 했다.

한 여름의 낮은 길기도 길었고 한 겨울의 밤은 어둠의 한숨 소리만큼이나 늘어났다. 그 시절이 이제는 속속 속의 배경으로 사라져 버렸다. 밤도 낮도 그 이름이 아니니 의미를 상실해버린 기계 문명의 화려한 개화 속에 우리의 옛 고향은 그 빛이

바래버렸다.

은어가 살던 시냇물에는 와와 악동이 기쁨을 몰고 있고 팔팔 소리 내며 물레방아를 돌리던 개울물기엔 달맞이꽃만 침습스럽게 피어있다. 푸른 솔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계곡에 흐르는 물은 마른 지 오래다. 땅이 메말라 가는 만큼 인심도 메말라 이예란에게 눈을 뜨고 나면의 행복에는 큰 열정을 불살라 사회는 타고 타고 또 타버렸다. 회색빛 마을에서는 여기 저기서 개개만 냄새만 나고 검은 아스팔트 위에서는 화열이 끓어오른다.

“잃어버린 고향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네 착박한 마음속에 꽃 메꿈을 열이 주세요”

개발의 열기 속에 아산은 지금 한창 변모되어 가고 있다. 자칫 우리가 망각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타는 쓰레기 더미로 뒤덮일 수 있다. 자연이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옛날과 달리 인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 문제는 오늘날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아산에 건립되는 자원회수시설은 이러한 문제를 자연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오늘날 발달된 소각로 기술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오염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오히려 그로 인한 자연 회복능력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연이라는 고향을 돌려

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대시 산림녹지에는 이러한 자원회수시설을 토시 한 가운데 세워 도시의 자연 정화 능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로 이름이 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나 프랑스 파리는 이러한 자원회수시설이 도시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도시로도 유명하다. 아름다운 정원과 멋진 호수, 훌륭한 스포츠 시설과 복지회관,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걱정하던 그런 우울한 모습은 없다. 아니 거꾸로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곳이 바로 자원회수시설이었다. 그러한 시설이 이제 아산에 건립된다면 정말 떠날이려는 생각이 든다. 단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자연 문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부분을 늘어 쳐주어 있을 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지혜로운 행위일 것이다.

아무튼 아산에 세워질 자원회수시설을 고향을 되찾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아름답게 건설하길 바란다.

제9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제97회 아산시의회(의장 이한욱) 제1차 정례회가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에 이시달점으로 개최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견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견 등 주요안건과 운영위원회 소관인 아

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소관인 아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요청의 건과 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로 하였다.

일시	차수	본회의	상임위원회		비고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6. 21(화) 10:00	1차	※개회식: 회기경정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헌정정문의 건, 휴회의 건			
		상임위 활동	조례안 등 심사	조례안 등 심사	
6. 22(수)		상임위 활동	조례안 등 심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운영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23~24(목~금)			현정방문		
6. 25(토)			자료검토		
6. 26(일)			일요일		
6. 27~29(월~수)	2~4차		사정질문 및 답변의 건		
6. 30(목) 10:00	5차	조례안 등 심의, 2004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1회 충남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개최



2005. 6. 10(금) 아산시의회(의장 이한욱)에서는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충남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체육대회는 배구, 족구, 펜넨틱 3개의 3개종목을 토너먼트 형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아산시 의원들은 3개종목 모두 열심히 경기에 임해 배구경기에서 우승(1위)을 차지하였고, 족구와 펜넨틱은 아쉽게도 우승을 하지 못하고 하였다.

또한 체육대회 식전행사에서는 공로가 있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여 사기를 높여 주었으며, 아산시의회에서는 이현호(지방행정주사보) 직원이 공로패를 받았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하여 아산시의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돌아왔다.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기가 먼저입니다

▷ 언제 어디서나

- 수영금지 구역이나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수영하지 않는다.
-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을 반드시 실시한다.
- 음주 후에는 수영하지 않는다.
- 어린이는 반드시 어른과 함께 동행한다.

▷ 해수욕장에서 지켜야 할 일

- 해안선을 따라 해염치고 멀리 나가지 않는다.
- 파도가 많이 칠 때는 수영하지 않는다.
- 유리조각, 글썽대기 등 예리하고 위험한 물건에 유의한다.
- 해수욕시간(09:00~19:00)을 준수한다.

▷ 상에서

- 강 건너기 등 무리한 시합은 금한다.
- 물살이 급한 곳에서 수영을 금한다.
- 지형상 굴곡이 심한 곳은 깊은 곳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한다.

▷ 물에 빠진 사람 응급구조 요령

- 장대, 나뭇가지, 낚시대, 로프 등으로 구조
- 물에 들 수 있는 지지물(통나무, 물통, 투우브, 구명환)이용
- 얇은 물에서는 도보로 들어가 육지로 구조
- 구명정(보트)에 의한 구조
- 최후수단으로 수영하여 구조 등

※ 물에 빠져 위험할 땐 즉시 119로 전화

가산시-서대문구 자매결연

2005년 6월 3일 아산시

서대문구

335,765명(134,960세대)
17.6㎢
1,924억원
소나무, 장미, 까치

인구 202,370명(80,998세대)
면적 542.26㎢
예산 5,001억원
상징물 은행나무, 목련, 비둘기

안산, 백련산, 북한산 등 자연녹지 풍부
문화재와 명문대 등 문화교육의 중심지
시민아파트의 개발이 활발한 생활하는 도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봉원사, 자연사박물관, 독립문

20동

아산시

21세기를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
농촌과 도시가 고루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누구나 와보고 싶어 하는 문화 관광도시
현충사, 외암민속마을, 영인산자연휴양림
아산·도고·온양온천, 맹사성고택, 광덕산

지역특성
가볼만한 곳
행정구역

1읍 10면 6동

자원봉사지원 행정서비스 현장

1.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원할 경우

-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우리 고장을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시, 읍면동이나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신 후 자원봉사 수요처 알선을 원하시면 1시간 이내에 수요처를 알선에 드리겠습니다.
-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는 시, 읍면동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여 신청 후 10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자원봉사자등록 방법은 전화, FAX, 방문신청은 물론 아

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우수 자원봉사활동 단체 및 개인에게는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에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2. 자원봉사에 수혜를 받기 원할 경우

- 자원봉사의 수혜를 받기 원하는 고객께서는 자원봉사자 수혜신청서를 시, 읍면동 또는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시면 자원봉사자를 3일 이내에 봉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공직자의 자원봉사 활동 출산참여

- 우리 공직자들은 의무적으로 연2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

동에 참여하겠습니다

- 부서별로 사회복지시설과의 자원봉사 결연을 맺음으로써 분기별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자원봉사와 학습회를 위하여

-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사이버복지센터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연4회 이상 실시하여 보다 질 높은 자원봉사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감이 될 만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에 홍보하는 물론 시청선전에 보도하고 자원봉사 수칙지를 분기별 1회 제작 배포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기를 양양시키고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 우리 모두 국기제양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2005년 상반기 주요시정

대한민국의 경제 아산이 이끌어 간다



▲ 세계 최대최고의 6-LCD 공장

인구 20만의 아산시가 4천만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충청남도가 발표한 2005년 1/4분기 수출입 동향을 보면 충청남도가 전국수출의 11.3%를 점유, 4위를 차지 했으며 무역흑자 부문에서는 58.4% 점유로 전국 1위에 랭크했고 아산시는 수출 39억불로 충남의 51.4%를 기록 했고 무역흑자는 32억불로 충남 37억불중 83.4%(도내 1위), 전국 66억불중 48.7%를 담당 해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제정을 살지게 하므로써 시민

이제 아산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서서 수출역군으로서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담한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

한편 충청남도 도내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시·군은 아산시에 이어 천안시(13억불), 서천군(1.7백만불) 금산군(1.4백만불)등 9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참조)

아산시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미래를 밝게 하는 또하나의 요소는

기업들이 아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아산시의 기업유치실적은 도내 1위(474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탕정지방산업단지에 삼성LCD가 입지하면서 시가 마련한 전자정보산업 단지이 직접적인 협력업체 300여개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인주지방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어 보다 왕성한 기업활동에 밝고 희망찬 아산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현대자동차가 정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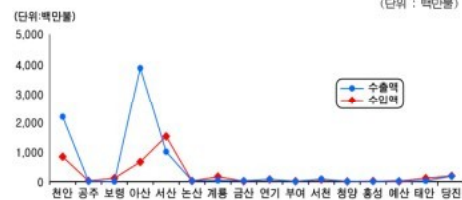
되어 수출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삼성LCD가 정상 가동되면 1000억원의 세수 증대와 300여명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 되면서 아산은 자동차와 첨단과학산업의 기업도시로 성장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들이 아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아산시의 기업유치실적은 도내 1위(474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탕정지방산업단지에 삼성LCD가 입지하면서 시가 마련한 전자정보산업 단지이 직접적인 협력업체 300여개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인주지방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어 보다 왕성한 기업활동에 밝고 희망찬 아산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현대자동차가 정상 가능되어 수출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삼성LCD가 정상 가동되면 1000억원의 세수 증대와 300여명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 되면서 아산은 자동차와 첨단과학산업의 기업도시로 성장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 1/4분기 시·군별 수·출입 현황



도시기반시설 이렇게 확충했다

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산업 발전과 구 도심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의 최우선은 편리한 이동과 물류의 원활한 유통을 가능케 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의 노력이며 시는 도로건설 부문에서 특별한 민한 상경을 이뤘다.

첫째 국도 21호선의 총사업비 2014억원을 투입 6·8차선으로 확포장되며 중앙분리대는 나무를 식재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로로 만들어 아산의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높이며 아산의 신선한 볼거리를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아산-유곡간 국도 39호선(22km), 아산-음봉간 국도 45호선(7.6km)·금내-준공예정), 둔포-성환간 국도 34호(8.9km)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동-행복간(12.7km), 배방-탕정간(4.9km), 행북-중목간(6.6km)간 도로의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로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선유대교·영치-음북을 잇는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 18.8km 구간의 4차선 개설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며 지방도 628호 음봉선

과 624호 당성노선 확·포장 사업 11.4km 구간에 걸쳐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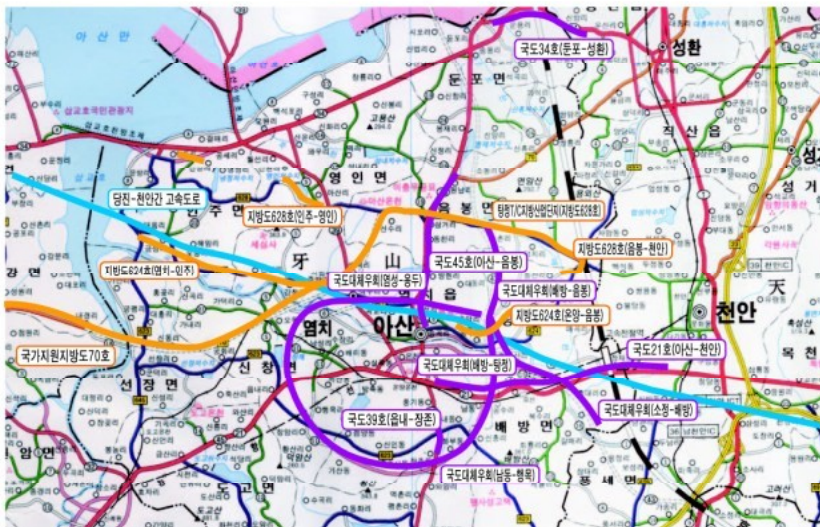
셋째 도시구역내 주요 간선도로(신정호 순환도, 경찰종합학교 진입 연결도로 등)와 시·군도(동화-초사간, 구림-갈산간 등)의 사업과 농어촌도로(구

성-신봉간, 신성-선창간)의 확포장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전철이 2007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아산의 도로망과 편리한 교통망을 이뤄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을 쉽게 하므로써 아산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수도권 전철의 운행을 도고운전까지 연장토록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확산되고 있어 이의 타당성을 중앙의 관계부처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물부족문제의 확실한 해결과 안정적 하수처리 노력

시는 물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생활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자족적 복합도시로서의 사회 기반 시설을 조기에 갖추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향상된 시민생활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으로는 중수도시행 지방상수도 사업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마을 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사업,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들 수 있다.

2005년까지 총 350여원을 투입하여 중수도시행 지방상수도 사업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시행되며 2016년까지는 물부족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한 아산시상수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착실히 추진 하고 있다.

중수도시행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수돗물 공급시설이 확충되는 지역은 영인, 인주 지역에 2006년까지 176억원을 투입되며 지난해 6월 영인 신윤리 중수도 시 상수도 사업을 착공, 현재 40%의 공정을 진척 하고 있다.

이사업이 완료되면 영인의 아산, 월선, 신문, 백석포, 와우, 구성, 참용리등과 인주의 공세, 모원, 신성, 결매, 밀두, 문방, 대유, 금성, 해암1.2, 도흥, 관암리 지역 물부족 현상 해결이 확실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크게 기대 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이 설치되는 열치, 음봉지역에도 2006년까지 174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음봉 원남리와 쌍용리 둔포면 운교리 봉수, 음봉 5월 둔포리 신남리 봉수등 48%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사업이 완료되면 음봉의 원남, 소동, 쌍용, 열치, 산양, 감정, 서원, 중방, 영성리 일원에 깨끗하고 위



생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이와함께 남동과 풍기동지역에 총25억원을 투입하는 상수도 공급시설, 탕정 호산리 주변에 제2단계 상수도 공급시설이 시행된다.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함께 시민의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안정적 하수처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현재 36,000톤/일 처리능력에 27,000톤/일을 증설하여 1일 63,000톤/일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아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지난해 6월 착공, 현재 35%추진되고 있다.

또한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모아 자체처리가 가능토록하는 배방하수종말처리장(4,500톤/일)과 둔포하수종말처리장(2,900톤/일)의 신설을 추진하여 8월

이런 설계용역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모종처리구역 하수관거 6.065km를 정비하는 공사를 추진 현재 92.3%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선장 대정·장곶지구와 음봉 쌍용 지구에도 하수도사업이 실시설계용역중이거나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산신도시에도 신도시 지구내에서 발행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토록 할 방침으로 16,000톤/일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200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시는 하수관거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올해 2월 환경부에 BTL사업 지역으로 선정, 6월 22일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많아지면 물부족 현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충분한 공급용수 및 생활, 농업용수를 확보,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고 적절한 방법에 의한 생활하수 처리로 환경오염의 예방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문화 창달과 독특한 이미지의 관광도시 육성



▲ 축제의 품격을 높인 조선시대 무과시험재현(마상무예)

문화와 관광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시가 거니고 있는 풍부한 문화자원의 보존과 새로운 관광패턴에 맞는 관광자원의 발굴, 개발을 함께 추진 하므로써 지역문화의 진흥과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관광시정을 실현 해 왔다.

상반기에 성묘원 제4회 성봉이문신축제에 45만여 관광객이 발걸음 하여 2년 연속 국가지정문화제로서의 위상을 떨치면서 축제를 통해 20만 아산시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어 주었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 중앙과 각 지방의 방송, 언론매체들이 아산을 찾아와 외암민속마을, 세계꽃식물원, 현충사등 아산의 문화재원과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

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볼록사 소나무 숲길, 공세리성당, 아산에 가볼만 한 음식점등이 언론, 방송, 잡지등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발길이 잦아 졌고 전화문의도 빈번해져 관광아산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시는 외지 관광객들이 우러시의 관광자원과 명소, 가볼만 한 음식점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자동응답전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외암민속마을, 맹사성고택등 전통 정신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명실 상부한 문화 도시임을 감안, 질적부흥과 보전을 위해 외암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시민의 여가활동과 문화 육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종합공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문화인의 문화활동 활성화와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시립합창단의 연주회, 실버밴드, O'P밴드의 구성과 빈번한 연주회를 유도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도시로 기구어 나가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미래관광수요 패턴에 부응한 다양한 관광개발로 주 5일근무제 본격시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외래 관광객 수육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482여위의 순수국비로 국교천을 문화, 체육, 관광자원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들이 향수를 자극하고 지리하는 청소년들에게 농촌을 이해하고 체험 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 개념의 농촌관광상품을 개발, 광덕산, 영인산, 도고산등을 활용한 레포츠와 연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순수한국비 482억원 들어 문화체육공간으로





읍면동 소식

생산자와 소비자가 친환경 농업현장에서 만나다 2005 한살림 단오잔치 한마당 열려



▲ 도고 화천리 한살림 단오잔치에 가봤어요

지난 6월 12일 일요일(음력 5월 6일) 도고산 자락(폐교된 도고초등학교 화천 분교 운동장)에서 한살림 풍물패(단장 오종섭)의 흥겨운 풍물 가락과 함께 2005 한살림 단오 잔치 한마당이 열렸다.

이번 단오잔치에는 전통을 사랑하고 친환경 유기농을 추구하는 한살림의 잔치에 걸맞게 단오 부채 만들기, 풍년 놀이기, 창포로 머리감기, 그네뛰기, 씨름, 길놀이 등의 전통행사와 논에 우렁이 넣기, 경운기 타기 등의 농사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 됐다.

또한 단오고사, 긴 줄넘기, 이어 달리기, 딱메치기, 천연 염색 천에 그림그리기, 나무 조각공예(솟대, 곤충)행사와 강강술래, 난장 등이 전개 되므로서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 생산자가 한마음이 되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흥겹고 뜻 깊은 잔치가 되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한살림은 읍면민 산정리에 그 본거지를 두고 20년 전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하여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의 최대 생산지로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가공, 유통(한살림과의 직거래) 등이 결합된 친환경농업의 대명사로 자리잡아 왔다.

이와함께 농산물 수입개방을 우리나라 농업의 어려움을 친환경농업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어 우리 농업에 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농업 사례로 주목 받고 있는 생산단체이기도 하다.

또한 아산시외의 한살림 생산자들이 꽃동네(면 다)위로 10개지회포함하여 『푸른들 영농 조합 법인』이라는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여한 소비자 김모씨는 "아이들 손을 잡고 우리농산물로 만들어진 떡도 먹어 보고 창포로 머리를 감으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친환경농업을 위해 노력하는 농민의 어려움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바로 알게 되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 이날 행사의 의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도고/주부명예기자 이민자〉

삼일아파트 부녀회, 바자회 열던 날

읍면민 삼일아파트 부녀회(회장 손찬순)는 지난 3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바자회를 개최하고 주위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민들과 함께 즐겁고 흥겨운 잔치 한마당을 마련했다.

차와 음식이 제공되고 노래자랑으로 흥이 한껏 돋궈졌고 참여한 500명의 주민들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즐겁고 화목한 화합의 잔치를 만들었다.

한편 행사가 무르익으면서 즉석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모금운동이 전개되어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바자회 수익금 전액과 함께 50만원의 성금을 읍면민내 어려운 이웃 5가구에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읍면/주부명예기자 오인희〉

영인, 현대모비스 인공지능형 글로벌 물류센터로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까지 현대,기아차 순정 부품 공급



▲ 현대모비스물류센터 준공식

지난 16일 영인면에 현대모비스가 국내최대의 인공지능형의 글로벌 물류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대모비스는 총547억원을 투자해 대지 6만평에 아산물류센터를 건립, 자동차 부품 11만여 종을 국내는 물론 해외(미국, 중국등)까지 현대와 기아차의 순정부품을 신속한 공급을 시작하면서 실물바코드 시스템을 도입 컴퓨터를 이용해 처리절차를 간소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의 창고 이미지를 벗어 나기 위해 각종 첨단 공법을 도입 외관과 내부를 쾌적하게 만들었으며 중앙에 분수대와 온실을 설치하고 화단과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지역

주민들은 영인에 대규모의 물류센터가 건립 되어 세계 각국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되므로서 세계의 중심부에 우리가 있다는 커다란 자부심과 함께 지역의 발전의 효과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다.

〈영인/주부명예기자 송경옥〉

온양2동 풍물패 '뽕' 충남도지사기 장려상 수상



▲ 송악 당나라에서 우리소리 한마당 펼치던 날

온양2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중 하나인 풍물패 '뽕'에 매우 뜻깊은 경사가 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하여 지난 4월 당진 한진포구에서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17개 시군이 참여한 도지사기 추수풍물대회에 참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40명으로 구성된 풍물패 '뽕'은 온양2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교교실에서 3여년동안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연습과 연습을 거듭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과 소리의 교감을 함께 나누어 왔다.

이와함께 장교교실은 우리소리를 통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어 동단위 행사에는 단골로 찾아가 무료공연을 하는 등 온양2동 주민자치센터의 모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온양2동/주부명예기자 이해상〉



▲ 선장면새마을농어지도자협의회 (회장 전용석, 장세자)중은책보내기운동에 참여 우렁이도서 300권과 도서상품권(10만원상당)을 시립도서관에 전달했다



유관기관 소식

전기안전기술교육원, 개원 5주년 맞이 사회봉사와 사랑의 헌혈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기술교육원(원장 정인관)은 개원 5주년을 맞아 배수로 및 농로 정비활동등 봉사활동을 전개, 지역주민과 함께 사는 교육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행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6월 9일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봉리 일대에서 우기철 정마로 인하여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에 쌓인 토사와 오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정비하였다.

또한 6월 10일에는 천안에 있는 "헌혈의 집"을 찾아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충남 아산시 도고면에 위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기술교육원은 2000년 6월 15일 개원, 공무원, 기업체 전기직 종사자, 공사 직원 등 연간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에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기안전관리전문교육기관이다.

또한 전기안전기술교육원은 박사과 기술사 등 우수한 교수진과 최신 첨단 실습장비를 갖추고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유수의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각종 전기제품을 비교·전시한 전시실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 평정대상 및 노동부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노동부 평가에서 수배전설비교육과정이 과점평가에서 A등급, 기관평가에서는 B등급을 판정받아 전기안전기술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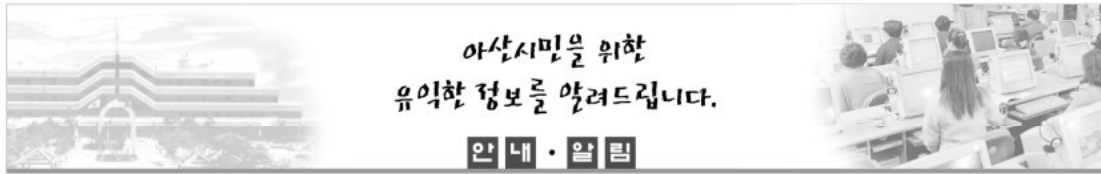
한국전력 아산시점 전력부하관리 지원제도 시행

한국전력에서는 여름철 전력부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마다 여름철 휴가보수기간 지원제도와 자율절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는 2005. 7. 19~7. 27, 8. 8~8. 19까지 (공휴일, 토요일 제외) 16일간을 시행한다.

휴가보수 지원제도는 계약전력 300kW이상의 일반용, 산업용 고객이 위 부하조정 기간에 연속 2일 이상 일시휴가 또는 설비보수를 실시하여 최대수요전력을 부하조정일의 최대수요전력보다 50%이상 또는 3,000kW이상 줄이는 경우 실적에 따라 일부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자율절전 지원제도는 계약전력 300kW이상의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고객이 위 기간 중 자율적으로 14시부터 16시까지의 부하조정시간중 평균전력을 당일 10시부터 12시까지의 평균전력보다 20%이상 또는 3,000kW이상 줄이는 경우로써 1회 30분 단위로 5회 이상 시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 신청기간: 2005년 7월 8일까지 (행정 아산시점 영업부)
• 신청방법: 공문 또는 FAX (041-539-3290)
• 문의전화: ☎ 041)539-3233-4 (수요관리과)



제2회 국가정보원과 함께하는나라사랑 온라인 공모전

- 제 목 : 국가정보원과 함께하는 즐거운 나라사랑 온라인 공모전
- 내 용 : 국가정보를 주제로한 (플래쉬, 포스터, 폰카, 디카)공모 * 폰카, 디카는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도 가능
- 참여자격 : 제한없음
- 공모기간 : 2005년 6월 1일 ~ 7월 10일(40일간)
- 기타 : 공모전 참가 및 행사안내는 www.nis.2005.co.kr을 참조바랍니다. (당선작 7월발표)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 일 시 : 2005년 7월 17일(일) 13:00~17:00
- 장 소 : 아산보건소 진료실
- 대 상 : 관내 외국인 근로자
- 진료내용 : 일반내과, 치과, 한방진료
- 열람 및 당도검사, 보건교육, 건강상담

제45회(2006년도) 아산성용이순신축제 공모

- 공모기간 : 2005. 6. 2 ~ 7. 11(40일간) / 지역-전국
- 목 적 : 공모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문화관광축제 등급 상향, 시민화합, 지역경제활성화 추구
- 내 용 : 제로상대(Zero base)에서 기획
- 시상내역 : 최우수(3천만원)
 - 대 상 : 1명(상장 및 상금 1천만원)
 - 금 상 : 1명(상장 및 상금 8백만원)
 - 은 상 : 1명(상장 및 상금 5백만원)
 - 동 상 : 1명(상장 및 상금 3백만원)
- 장려상 : 4명(상장 및 상금 각1백만원)

2004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5. 6. 7 ~ 7. 5(29일간)
- 조사대상 : 692개 업체(조사자 5위이상 제조업체)
- 조사원 : 7명(관리자 1, 조사원 6)
- 조사방법 : 사업체 현장 방문조사
- 조사내용 : 16개 항목(종사자수, 출하액, 주요생산품, 유형자산, 재고액 등)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 급전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이 8%에서 9%로 1% 상향조정됩니다.
- 월소득이 106만원인 경우, 납부할 월보험료는 현재 84,800원 → 95,400원으로 조정됩니다.
- 현재 사업장 가입자와 공무원의 경우 소득의 9%이상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2005년 4월말 국민연금 기금은 140조원이 적립되어 안전하게 운용 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통가가 오르면 매년 받는 연금액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어쩔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안지사 ☎041-550-8842-9

소매점의 반병(공병) 반환방법 및 보증금지급요령

- 반병(공병)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
- 품목 : 주류/청량음료

규격(ml)	보증금액 (한글금액/개당)	회급수수료 (총액/개당)	대 상 용 기
190미만	20원	5원	현재 대상제품은 없으나 제조업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 가능
100이상 400미만	40원	13원	소주 3종류, 소형 맥주병, 글러, 사이디 등
400이상 1000미만	50원	16원	맥주 3종류, 대형병 등
1000이상	100원이상 300원이하	20원	대형 유스병류 등

□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소비자가 반병 반환시 위 요의 반병 보증금을 전액 지불
- 판매중인 제품반병과 같은 반병은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부종금 지불(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지불
- 문의전화 : 아산시 청소과(540-2070)

청소년증 발급 안내

- 청소년에게 자부심과 경제력 혜택 및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청소년증을 발급합니다.
- 발급대상자 : 아산시 거주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방법 및 유효기간
 - 신청방법 : 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청소년담당자) 방문 신청서 작성
 - 준비서류 : 사진(3cm×4cm, 반명함) 2매
 - 유효기간 : 생년월일 기준, 만9세가 되는 날부터 만19세가 되기 직전일까지
- 발급수수료 : 무료
- 청소년증 용도 : 할인혜택
 - 대중교통요금, 체육 스포츠경기장 입장료, 국·도립공원, 박물관 입장료, 극장, 사설박물관, 영화관 놀이공원등(모든 청소년 동등한 할인)
- 신분증명서 : 금융거래, 국가시험 등시 등에 있어 신분증명서 역할
- 문의처 :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공보체육과(540-2257)

강당골 차량통행 제한 안내

-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군도7호(강당 ~ 역촌)
- 구 간 :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301-4번지 주차장 ~ 역촌
-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 광덕산 - 강당골 이 용객 차량
- 기 간 : 매년 7월 1일 ~ 8월 31일 (매일 09:00 ~ 19:00) (이 기간외 토요일·공휴일 등 차량혼잡이 예상될 경우 통행제한)
-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이유 : 차량혼잡으로 인한 광덕산 - 강당골 이용객의 안전도모 및 행락질서 유지
- 기타문의 : 아산시청 교통행정과(540-2369)

영농 현장 순회 교육일정

- 7월 5일(화) 10:30~12:00 : 영인(창종3/회관), 선장(대흥2/회관), 송악(수곡1/정자나무), 탕정(갈산1/회관), 신창(궁화1/회관), 둔포(운흥리/회관), 도고(사전2/회관), 온양5(신인2/회관), 인주(문방1리/회관), 염치(석정2/회관), 음봉(월랑2/회관), 배방(휴대1/회관), 도고(신언2/회관), 음봉(신수1/회관)
- 7월 6일(수) 10:30~12:00 : 영인(신봉2/회관), 선장(광평1/회관), 송악(동화1/회관), 탕정(갈산2/회관), 신창(가덕2/회관), 둔포(신창2/회관), 염치(방현3/회관), 배방(세교2/회관), 온양(초사2/회관), 도고(화천2/회관)
- 7월 7일(목) 10:30~12:00 : 영인(성내1리/회관), 선장(선운/회관), 송악(종곡/정자나무), 인주(금성리/회관), 신창(신곡2/회관), 둔포(운흥리/회관), 염치(백암2/회관), 배방(장재1/회관), 음봉(산동2/회관), 인주(해암2/회관)
- 7월 8일(금) 10:30~12:00 : 영인(신화1/회관), 영인(역2/회관), 신창(기내1/회관), 인주(도흥2리/회관), 음봉(송촌리/회관), 인주(관암2/회관), 인주(냉정리/회관), 음봉(동암2/회관), 온양(법곡1/회관), 온양(좌부/회관), 염치(대동리/회관), 배방(구영2/회관), 도고(도산2/회관), 도고(기곡2/회관)

지역주민을 위한 노래교실

- 개강일시 : 7월 1일(금) 오전10:30
- 장 소 :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인문관 지하 대강당
- 시 간 : 매주 금요일 10:30~12:00(주1회)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수강료 : 무료

덕우직업전문학교 국비무료 직업훈련생 모집

□ 입학요강

구 분	교육과정	교육내용	관련자격증	교육기간	제출서류	입학자격
실업자 직업훈련	(CAD) 전산응용 프레스급	컴퓨터활용 워드프로세서 2D/3D CAD	전산응용기계제도(CAD)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제도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6개월 (2005. 7. 14~ 12. 30)	1. 우체국통장사본 2매 2. 신분증사본 2매 3. 병영합사본 2매 4. 구직등록증 (노동부인정인)	- 취업/성업 자격증취득희망자 (15세이상-65세미만 외국인 제외)
	정보통신 시스템	컴퓨터활용 정보통신일반 ISDN운영 LAN구성 및 운영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통신, PC정비사 CCNA, 네트워크관리사	3개월 (2005. 9. 12~ 12. 30)	5. 직업훈련기관서 (본교제출)	- 우부합성 - 일반직업기능(미취업자)
	컴퓨터활용	컴퓨터일반 스프레드시트일반/실무 데이터베이스일반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3개월 (2005. 9. 28~ 12. 30)	6. 입학원서 1부 (본교 소정양식)	

절차 고용안정센터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마친 후 교육신청.

- 접 수 처 : 본교 교육처(선문대 아산캠퍼스에서 천안방향 500m)
 - 천안지역 : 천안고용안정센터(천안지방노동사무소 맞은편 제일은행빌딩 3층)
 - 아산지역 : 아산고용안정센터(아산경찰서 옆 신협빌딩 3층)
 - 센터출장접수 10:00~ 17:00까지(월~금) 홈페이지 필수기능
- 접수절차 : 교육희망서(☎41541-6037로 연락주시면 관련서류 준비하여 업체 및 개인방문상담)

다양해진 행정서비스, 시민 곁에 있습니다

4국 22과로 기구개편, 청사재배치로 업무효율 극대화

시는 20만 인구시대에 걸맞게 시의 기구를 4국 22과로 개편하고 청사 배치를 조정하는 등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체계를 갖췄다.

또한 민원인원과 실가별 민원에 따라 적정면적을 고려, 층별 사무실 배치를 재조정하고 조직의 안정과 행정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직원배치를 마무리하고 희망한 아산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본청 층별 배치, 행정기구표 참조)

또한 지난 6월 11일 휴무요일과 일요일, 이전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책상을 나르고 전선을 연결하는 등 구상도를 흘리며 준비해 13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한 산업경제국도 이전을 완료, 업무처리에 들어갔다.

뿐만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가 구 군부대를 리모델링하여 이사하면 비좁았던 청사는 민원인들의 적당한 휴게 공간을 만들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도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본청과 중소기업

터간 셔틀버스를 1시간 간격으로 7월 19일까지 운행하여 본청으로 찾아오는 산업경제국의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는 4국 22과를 기구를 개편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경제국을 신설하고 평생학습과를 새롭게 두어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교육도시 만들기과 병행,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신도시 조성 등 폭주하는 도시개발 업무의 수요에 알맞춰 도시계획과를 신설하는등 조직정비도 마무리 했다.

특히 시는 문화관광과에 고품격의 축제를 준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각부서에 민간 전문가를 계약적으로 유인 전문지식을 행정에 접목시켜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청사배치 및 행정기구



- ▶ 4층 : 아산시의회
 - ▶ 3층 :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공보체육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 ▶ 2층 : 평생학습과, 총무과, 청소과, 도시계획과, 신도시조성과
 - ▶ 1층 : 회계과, 세무과, 민원위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 ※ 본청의 사무실 배치 (1국 3과)
- 위치 : 염치읍 송곡리 중소기업지원센터
 - 1층 : 교통행정과
 - 2층 : 산업경제국장실, 농정과, 지역경제과



아산시, 평생학습도시를 준비한다

6월 15일 충남도 교육청에 평생학습도시 신청

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원하는 학습과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지난 6월 15일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명문학교 육성 등 교육도시



와 병행하여 학교교육 뿐만아니라 다양한 복잡한 수많은 정보속에서 보나 향상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학습을 통해 채워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구개편 시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과내에 교육부문의 교육지원담당과 평생학습

을 추진할 평생학습담당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면서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

또한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선 중추원을 대상으로 선진지역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추진 방법 등에 대하여 외부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1차년도에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 받고 2차년도부터는 3년간 프로그램운영비 및 개발비로 1억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며 현재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돼 있고 올해 6개 단체를 추가로 지정 할 것으로 밝혀졌다.

시관계자는 "평생수명연장이 연장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학교교육 이외의 평생학습 개념이 필요한 때이면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지역 공동체를 실현코자 한다"고 말했다.

7월1일부터 이렇게 운영됩니다

주5일(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토요일은 휴무

전국의 행정기관이 7월 1일부터 주5일(40시간)근무제를 확대, 전면시행한다.

가동아 때월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을 휴무일로 해오던 것을 7월 1일부터 매주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도록 확대 됨에 따라 시민들은 7월 1일부터 매주토요일이 휴무일임을 감안하여 시급을 다루는 민원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등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한시적으로 토요일민원상황실을 운영키로

하여 토요일휴무제가 정착 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으로 즉시 민원과 재증명 민원이 가장 많은 세무과와 민원위생과, 토지관리과와 직원 한명 총 3인이 순번제로 토요일민원상황실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등본등 단순 재증명 민원은 시청 민원위생과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전자민원장구(www.egov.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7월의 문화행사>

- '우크라이나 샹폴리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일시 : 2005년 7월 7일(목) 19:30 ~
 - 장소 : 국민생활관
- '올그네는 바달레' 공연
 - 일시 : 2005년 7월 12일(화) 15:00
 - 장소 : 국민생활관
- 2005 별빛 특선영화제
 - 일시 : 2005년 7월 17일부터 매주 일요일(20:00~22:00)
 - 행사내용 : 특선영화, 추억의 영화, 가족영화등 상영
 - 장소 : 신정호 국민관광지 특설무대
- 청소년 어울마당(미소축제)
 - 일시 : 2005년 7월 16일(토) 20:00~22:00
 - 행사내용 : 관내 중·고·대학생 동아리 공연
 - 장소 : 신정호 국민관광지 특설무대
- 청소년 토요일 문화의 밤(신정호축제)
 - 일시 : 2005년 7월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20:00~22:00
 - 행사내용 : 록페스티벌, 연극제, 통기타페스티벌등
 - 장소 : 신정호 국민관광지 특설무대